나라현・한국과 관련이 깊은 곳 소개

제 1 탄　　아스카데라 절

나라는 고대부터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지금도 나라현 내에는 한일 교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옛날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토기 제작, 농공 기술, 토목 기술, 직물 짜기, 한자, 불교 등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일본으로 전해준 사람들을 '도래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4 세기에서 7 세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래인이 많았습니다. 도래인은 7 세기 아스카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올해는 나라현과 한국 충청남도가 2011 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지금부터 나라현 내에 있는 한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 특히 충청남도와 연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아스카데라 절은 588 년 소가노 우마코가 건립을 발원하여, 596 년에 완성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불교 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카데라 절의 건립에 백제에서 파견된 승려, 불사(불상 제작 기술자), 사공(절 건축 기술자), 노반박사, 와박사가 기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가람배치 구도의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카데라 절의 가람배치는 탑을 중심으로 동쪽, 북쪽, 서쪽으로 금당이 배치된 양식입니다. 이 배치는 고구려의 청암리사지, 상오리사지, 정릉사지, 신라의 황룡사지 등에서 볼 수 있는 양식입니다.

아스카데라 절의 본존인 동조석가여래좌상(아스카 대불)은 7 세기 초기에 도래계인 구라쓰쿠리노 도리(鞍作止利)가 제작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입니다.

아스카 대불

아스카데라 절 입구(정면)

수덕사(한국 충청남도 예산군)

사진 제공:충청남도

현재 아스카데라 절은 1987 년부터 한국 충청남도 예산군의 수덕사와 결연을 하여 자매사원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스카 대불을 보니 만들어진 지 1400 년 이상 흐른 지금도 같은 장소에서 아스카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아스카데라 절의 건립과 아스카 대불 제작에 기여한 옛 선인들의 훌륭한 기술에 감동했습니다.

(나라현 국제교류원　남현정)